

공동체 소식

**한 가 위**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주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9월 기도지향

- 류기범(요셉), 신혜경(마리아) 가정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해마다 구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묵상하며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주간 전례

- 9/16(월) : 성 고르벨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 9/21(토) :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추석합동위령미사

9월 15일(주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에 감사드리고,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9/21(토) 오후 5시
  - 장소 : KU 채플
- ☞ 본당 사정상 한 주간 앞당겼습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9/22(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기타

- 11/24(일) 중심미사 때, 노이만 대주교님(캔사스 대교구)의 공식적 사목방문과 미사 봉헌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대주교님을 맞이해야겠습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가 개학하여 첫 수업을 갖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매 주일, 회관서 교리교육이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23	51	506/504	34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안광희(크리스토퍼)	문석찬(요 션)
	안광민(야 고 보)	문호진(안토니오)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차호섭(요 션)
	문예나(요 안 나)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정수한(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차주	박혜정(가타리나)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애찬 봉사자

금주	다함께
차주	최선윤,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9/01	87명	406불	1,240불
09/08	105명	413불	1,43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조상에게 햇곡식과 햇과일을 바치는 전통을 이어받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주님께 도로 바치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달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환히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 말씀의 초대

주님께서서는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날’이 왔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알려 주신다. 그날에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맺으며 온갖 풍요를 누리게 된다(제1독서). 파트모스의 요한은 마지막 날에 관한 환시를 본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땅의 곡식을 수확하시는데, 이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제2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탐욕을 경계하라고 이르시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고 난 뒤 그것을 모아 두며 먹고 마실 생각에 기뻐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재산도, 그의 생명도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밝히신다(복음).



제 1 독 서 : 요엘 예언서 2,22-24.26 <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

화 답 송 :



은 땅 이 여 노 - 래 하 - 며 주 님 께 찬 - 미 드 리 자 -  
알 렬 루 야 알 렬 루 야 알 렬 루 야 -  
알 렬 루 야 알 렬 루 - 야 알 렬 루 야 -  
1. 새 로 운 노 래 를 주 님 께 불 러 드 러 라 주 님 께 불 러 드 러 라 -  
2. 묘 - 한 일 들 을 당 신 이 이 루 셨 도 다 당 신 이 이 루 셨 도 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 14,13-16  
<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 음 : 루카 12,15-21 <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



쉐 마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갖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며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는 모든 이에게 풍요로운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 들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곡식을 수확하는 데 필요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갖가지 조건들을 채워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는 조물주 앞에 참으로 겸손한 우리 조상들의 신심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는 자신의 수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어 낸 것인 양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가며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이 잘된 것을 망각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기는커녕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더 나아가 우리 생명 또한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연장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힘으로 되어가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특별히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마련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좋은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늘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바오로 수도회 창립자이신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께 말기는 기도]를 함께 봉헌해 봅시다.

“나의 하느님,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저의 더 큰 선을 위하여 미리 보고 마련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뿐이오나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받들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를 따르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희생제물에 합쳐 저의 온 존재를 당신께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비오니, 주님께서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저의 성화를 위하여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 성바오로 수도회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마중물

지하철에서 생긴 일

어떤 대학생이 밤늦은 시간에 마지막 4호선 지하철을 탔는데, 늦은 시간이라 승객은 거의 없었다. 다만, 술 취한 승객 하나가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자신을 보더니 손짓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 승객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렇게 학생에게 질문했다. “학생,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지요?” 대학생은 잠시 생각하다 친절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나 친절이 때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나의 잘못된 자아나 이기적인 욕심이 남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 그 승객은 갑자기 전철이 미아역에 도착하자 ‘헐레벌떡’ 내리는 것이었다. 대학생은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금세 잊어버렸다. 그러나 잠시 후, 전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정차할 역은 길음역입니다.” 그 대학생은 그 승객에게 베푼 잘못된 친절에 대하여 후회하며, 그날 밤 한참 동안이나 잠 못 이루었다고 한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5절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55. 예수님께서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을 드러내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다는 사실은 달리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빈 무덤은 모든 사람에게 핵심적 징표가 됩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먼저 거룩한 여인들의 경우가 그러했고 다음에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요한 20,2)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요한 20,6) 발견하고,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빈 무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사람이 한 일일 수 없으며, 라자로의 경우와는 달리 예수님이 단순히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40항).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거룩한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 매장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마져 발라 드리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알린 첫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어서 열두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그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고, 그의 증언을 듣자 공동체는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루카 24,34)고 외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41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 3